

toxin free



지난해 봄 팝 스타 셀레나 고메즈가 <보그> 인터뷰를 통해 루푸스 투병 사실을 고백했다. 루푸스의 또 다른 이름은 자가면역질환. 외부로부터 인체를 지키는 면역계가 이상을 일으켜 오히려 내 몸을 공격하는 현상을 말한다. 발병 주요인은 대기오염과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무얼 먹고 또 바르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 니만 마커스가 주목한 '비니스 유어 마스크(Beneath Your Mask)'는 '면역 개선에 초점을 맞춰 개발한 뷰티 브랜드다. "서른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루푸스로 고통받으며 면역력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당시 온몸이 통통 부어오르고 피부에 홍반이 올라와 잠깐의 외출도 사치였죠." 창립자 데이나 잭슨은 25개국에서 채집한 유기농 천연 원료를 미용 성분으로 활용해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브랜드를 만들었다. 제품은 총 네 가지. '힐스킨 수플레' '톡톡스 바디 스크럼' '토탈 바디 엘릭시르' '스킨 & 헤어 세럼' '클래리파이밍 페이스 마스크'. **LZH**



in vogue

BEAUTY

겨울의 끝자락, 얼어붙은 마음의 온도를 높여줄 신상 향초 3. **LZH**

DIPTYQUE 'ROSE CANDLE DELIGHT' 18세기 연인들이 사랑의 징표로 주고받던 달콤한 사탕 '루콤'의 향을 재현한 디프티크의 새 향초 '로즈 캔들 데일라이트'. 장미 꽃잎과 레몬을 꿀에 절인 새콤달콤한 향이 매력적이다.

SISLEY 'CANDLE COLLECTION' 부자집 향기의 대명사 시슬리의 반가운 향초 론칭 소식, 시슬리 최초의 향수 '오 드 캄빠뉴' 향을 머금은 '캄빠뉴', 최신 향수 '이지아'의 바로 그 장미 향을 담은 '로즈', 관능적 파우더리 향 '투베로즈' 중 당신의 선택은?

ANYA HINDMARCH 'ANYA SMELLS' 재기 발랄한 디자인으로 사랑받는 안야 힌드마치가 스타 조향사 린 해리스와 손잡고 향초를 선보인다. 안야가 사랑하는 세 가지 사물(커피, 자외선 차단제, 베이비파우더)에서 영감을 받은 '안야 스멜즈'.

갖 구워낸 고소한 빵 내음. 아마 세상에서 가장 유혹적인 향이 아닐까?(영국 시인 조지 허버트는 빵 냄새를 일컬어 '최고의 향'이라 극찬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캔들 메이커 김수향이 새해를 맞아 참신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향기 달력 '수향 베이커리'다. "작년 가을 홍콩 팝업 스토어를 준비하면서 홍콩의 향을 담은 시향지를 제작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향기 인쇄의 매력을 느꼈죠. 향수나 방향제가 아닌 향을 이용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목말라 있던 차에 향을 머금은 달력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수향 베이커리'가 그 결과물입니다." 수향 베이커리는 향기로만 존재하는 가상의 빵집. 달력에 인쇄된 향기는 1년 넘게 지속되고 종이를 문지르면 향이 더 진하게 느껴진다. 1년 열두 달을 통틀어 김수향이 가장 애정하는 달은 5월이다. "크리미한 아이싱을 올린 애플 시나몬 케이크 향이예요. 따뜻하고 행복한 기운으로 가득하죠." 달력은 12개월 묶음 혹은 낱장으로 판매된다. 수향의 상징적 이니셜 서비스는 보너스! **LZH**



COURTESY PHOTOS

candlelight

